

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흉부외과학교실
 전홍주 · 류지윤 · 조광현

대동맥류는 과거 높은 사망율을 보이는 질환이었으나 최근 진단방법 및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술로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특히 대동맥류 파열시는 매우 높은 사망율을 보이므로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수술이 요구된다. 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7년부터 1995년 7월까지 본원에서 수술로 치료받은 대동맥류 20례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1. 환자의 성별은 남자 11명, 여자가 9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최저 28세에서 최고 73세 (평균 49.9세)였다.
2. 부위별로는 크게 흉부대동맥류가 14례, 복부대동맥류가 6례였으며 이중 흉부 대동맥류는 박리성 대동맥류 8례, 만성대동맥류 6례였다.
3. 박리성 흉부대동맥류는 다시 기시부에 따라 Stanford type A와 B로 나누었는데 A type이 6례 B type이 2례였다.
4. 수술은 박리성 흉부대동맥류 A type중 대동맥 판막이 보존된 4례는 동맥류 절제 및 인조혈관 대치술을 시행하였으며 대동맥판막 역류가 동반된 2례는 Cabrol술식을 이용하여 판막과 혈관을 함께 치환하였다. B type 2례는 모두 동맥류 절제 및 인조 혈관 대치술을 시행하였다.
5. 만성 대동맥류 6례중 대동맥 및 대동맥 판류 확장증으로 진단된 4례는 Bentall 술식 1례, Cabrol 술식 3례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2례는 동맥류 절제 및 인조혈관 대치술을 시행하였다.
6. 복부대동맥류 6례중 신동맥을 포함함 광범위한 동맥류로 인조혈관 대치술이 불가능하였던 1례를 제외한 나머지 5례는 모두 동맥류 절제 및 인조혈관 대치술을 시행하였다.
7. 수술 사망은 3례로(사망율 15%) 사망원인은 저심박출증, 급성신부전 및 패혈 증이었다.